

결혼이주여성의 자원체계와 한국생활적응*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Resources for Life Adjustment in Korea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by explaining the resources to which they have access and how they use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en female participants who have more than one child, have participated in progra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have work experience, can communicate with Koreans, and live in Daegu.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personal resources differed. English language skills were very useful resources for making money and for earning the respect of family members and others. However, the participants without English language skills had sincerely and actively trie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gain bilingual competence. The participants obtained diverse family resources from their husbands and parents-in-law after adapting themselves to perform their gender role. Further, the participants used the social resources offered by public support systems as a starting point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n their early adaptation process, and formed personal networks with staff members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used many kinds of resources for acculturation by interacting positively with their environment. Moreover, the resource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78)

** 주저자, 교신저자 : 홍성희(hsh@kmu.ac.kr)

from diverse levels of their environments affected their acculturation process.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한국생활적응 (life adjustment in Korea), 개인적 자원 (personal resources), 가족자원 (family resources), 사회적 자원 (social resources)

I. 서론

결혼은 남녀의 선호와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적, 문화적 배경이 교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의사소통과 시공간의 제약으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탐색과정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서 급속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혼 후 갈등이 발생되거나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이 내국인 부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는데, 그 이유로는 단시간 내에 결정되는 결혼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신경희, 2004; 김현숙, 2007), 부부의 연령,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김두섭·이명진, 2007), 의사소통 문제(홍달아기·채옥희, 2007), 양국 간 문화와 가족제도의 차이로, 부부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김이선 외, 2006). 반면 설동훈 등(2006)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이주여성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은경(2010)은 이주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지지,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국제결혼부부의 상호 이해와 신뢰 부족, 의사소통 제약, 가족제도와 문화 차이와 같은 다양한 제약에서 출발하는 결혼 초기 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개개인의 역량과 주변 환경적 여

건에 따라 한국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결정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과 환경을 떠나 국외로 이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혼이주는 다양한 차원의 환경 변화를 초래한다. 이주여성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결혼과 생활적응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여성이 소유한 자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적응 및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적응의 어려움과 생활상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생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홍기혜, 2000; 양선화, 2004; 신경희, 2004; 윤형숙, 2004; 김현숙, 2007; 채옥희 외, 2007), 이후 이주여성의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유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부부관계 및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김오남, 2006; 김희주 외, 2007; 김현숙, 2010; 신유경 외, 2010)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주제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갈등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세분화되는 한편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강점과 사회적 지지 등 특정 자원의 유용성을 분석하는 연구(장진경, 2009; 김현숙 외, 2010; 공수연 외, 2011; 이영실

외, 2012)도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화 차이에 있고, 적응의 핵심도 문화적 차원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아진 외, 2011; 홍달아기, 2012; 홍성희, 2012)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세분화되고 증가되어 왔지만 이주여성의 자원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 한국어능력과 같은 이주여성의 개인적 자원이 적응 또는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김현숙, 2010; 김현숙 외, 2010; 김민경, 2012), 남편의 지지(김현숙, 2010) 또는 사회적 지지(이영실 외, 2012)가 갈등과 적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다루고 있으나, 이주여성이 소유한 특정 자원에 집중해 다차원적인 자원의 대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원은 개인이 요구 충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자 소유물로, 이주여성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원부터 가족자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자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자원들은 이주여성과 가족이 속해있는 크고 작은 환경으로부터 파생되거나 보유 또는 잠재되어 있으면서 여성과 가족, 여성과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여성에게 영향을 준다. 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주국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체계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조절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체계론적 접근이 유용하다.

이주여성이 사용하는 자원은 생활적응을 지원해주고 문화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개인에 따라 자원의 소유량과 유형, 활용능력, 활용하는 분야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을 파악하고, 갈등 해소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이주여성이 다양한 차원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만들어가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론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자원

체계론에 의하면 모든 대상은 하나의 체계(system)이며, 체계 내에는 하위체계(subsystem)가 존재한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가족구성원 개개인은 하위체계이다. 또한 가족체계는 지역사회체계의 하위체계이다. 이때 각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한 체계 내의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는 변화는 이주여성 자신 뿐 아니라 남편이나 자녀, 시부모 등 다른 가족원의 역할, 일, 책임, 자원 등에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체계론에서는 가족이 속해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환경은 가족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에 대한 환경의 의미와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환경은 가족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의 정도, 상호작용빈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통제의 정도에 따라 가정환경, 근접환경 및 광역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환경은 가정 구성원에게 있어서 일차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가정환경은 구성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와 같은 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구, 설비, 주택, 자동차 등 가정생활을 위한 물리적 조건, 재화와 용역을 조달할 수 있는 금전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근접환경은 가족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지역사회로서 일, 교육, 의료, 행정,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와 자연적 특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근접환경에서 가족구성원은 일하고, 공부하며, 즐기는 활동을 통해 친척, 친구,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사회적 측면도 포함할 수 있다. 근접환경의 특징은 가족이 살고 있는 국가, 지역 및 도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획득,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게 된다. 광역환경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사회 또는 문화로서 시, 도,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만큼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가족의 식생활방식이 뿌리를 둔 문화적 관습이나 가족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법과 제도가 그 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로 인해 가족이 제약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역환경은 개별 가족이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각 가족이 광역환경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홍성희 외, 2008).

체계론에서 강조하는 환경은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다양성과 유형을 결정해준다. 결혼이주여성의 성격과 기질, 의사소통능력,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소득 등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가정환경으로부터의 자원으로서, 개인에 따라 소유여부와 양 및 질, 활용능력 등이 다르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교육, 행정 등의 서비스와 특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그리고 이들이 사적, 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등은 근접환경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이다. 지역사회의 자원은 개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개인과 가족의 자원을 보완해줄 수 있다. 광

역환경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업지원정책과 같은 법, 정책, 사회적 인식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해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의 범위와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양질의 자원을 만들어나가도록 돕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자원과 한국생활적응

자원의 유형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가족 내 자원으로는 구성원의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개인 간 상호작용 및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대인적 자원, 교환가치 여부에 따라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 등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가족 외부에 존재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해주는 동료, 지역사회, 국가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홍성희 외, 2008).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자원은 이주여성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구성된 개인적 자원,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구성과 가족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가족자원, 그리고 가족 외부의 지역사회 및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자원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가족에게 어떤 자원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부 간의 권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가정 내에서 점유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이 증가한다. 이때 자원에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 성적 매력, 가정 내 역할, 동반자로서의 능력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이중 경제적 자원은 개인차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원이론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요소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Blood & Wolfe, 1960).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을

다른 연구에서도 경제적 자원은 가계경제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지적한다. 즉 경제적 자원은 자신의 안정, 자존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는 변수로, 재정문제가 있을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더 표출되기 때문이다(Woelz-Stirling, 200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원 이외에 국적과 언어가 더해져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젊을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 출신이 아닐 경우 가정 내 지위가 높아진다(김현숙, 2006). 도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수연과 양성은(2011)의 연구에서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아내와 가사 및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저변은 부부의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높은 학력과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남편이 인정해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개인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의 개인적 자원은 부부관계에서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환경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자원은 남편, 시부모나 시가족, 그리고 친정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신체적, 물질적 도움 등이다. 이주여성은 모국에서의 교육수준, 직업경험 등의 인적 자원이 입국 후 한국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한국인 및 한국사회와의 교류가 적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여성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큰 자원이 된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지지는 가장 중요한 가족자원이다. 남편은 심리적 지지나 가사노동과 육아 보조, 한국문화와 언어를 전수하는 역할 등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Ungson(1982)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사회관계망과 지역사회 지지가 부족하여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오남, 2006에서 재인용), Abraham(2000)의 연구에서도 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지

위와 인적 자원이 유리하지 않고 남편만큼 사회적 활동이 많지 않아 남편이 부인과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편이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아내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지지는 아내의 적응을 도와줄 뿐 아니라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주고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현숙(201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이주여성의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 의도는 낮게 나타났으므로써 남편의 지지에 따라 결혼적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남편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으며, 배우자에 대한 지지방식에 문화적 차이가 있어 지지의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본국의 가족과 왕래하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 많은 연구에서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는 이주여성들에게 자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갈등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밀착과 간섭(윤형숙, 2004), 며느리를 한국인과 비교하고 못마땅해 하는 태도(김현숙, 2006), 며느리의 모국문화에 대한 비하, 몰인정, 자녀교육의 주도권 쟁탈, 전통문화 고수를 둘러싸고 이주여성들은 고부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연 외, 2011).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가족의 지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경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점차 확충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을 보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결혼이주여성처럼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정보, 상담

등의 지원이 결혼생활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김현숙 외, 2011).

사회적 자원으로서 공적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 김오남(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문화적 차이 해소 교육 등이 제공될 때 부부간 갈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2007)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적응이나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6)는 한국어교육을 수강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의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적지원체계의 서비스와 교육이 이주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부부관계, 생활적응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적응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의 규정 없이 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소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주여성의 자원과 관련시킨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고찰을 위해 한국생활적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혼적응 및 부부적응, 그리고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켰다.

초기 연구들은 이주여성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응의 어려움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강유진(1999)은 의사소통의 제약이 적은 조선족여성 대상 연구에서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이며, 생활습관의 차이, 경제

문제, 성격 차이, 폭언 및 폭력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밝혔다. 양선화(2004)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과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나며, 신경희(2004) 또한 이주여성들은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관계 등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등을 다방면에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인 남편들은 문화 차이를 언어와 식생활의 차이 정도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남편의 경제권을 비롯한 가정 내 자원 독점(홍기혜, 2000), 기대했던 결혼생활과 실제 결혼생활의 차이(윤형숙, 2004) 등도 이주여성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났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7)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문제이며, 언어문제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의사소통으로 겪는 문제와 혼란이 매우 과급적임을 보여준다.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는 국제결혼의 구조(최송식 외, 2008)에서 시작된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류사회로의 통합의 어려움, 고립(김현숙, 2007),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문화에의 부적응과 갈등(김이선 외, 2006) 등으로 심화되어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및 한국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정천석과 강기정(2008)은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 중 부부관계의 계급화를 강조하였다. 부부관계의 계급화란 국제결혼부부의 출신국간 경제 차이로 인해 가부장적 경향이 강화되어 부부관계가 준계급관계로 변하는 현상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에서 정보 부재로 인해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의 초기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동훈 등(2006)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은 적은 편이며, 김은경(2010)의 부부 상호작용 조사에서도 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차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주여성의 적응에 대한 관점과 연구방법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적응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언어 미숙, 정체성 혼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 등 문제점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잘 적응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주목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운 적응과정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희주 외, 2007; 공수연 외, 2011).

김희주와 은선경(2007)이 심층면접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의 적응과정은 혼란과 당황스러움, 현실에 대한 실망,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에게 더욱 헌신하고, 출신국 여성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한국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대처방법을 동원하여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공수연과 양성은(2011)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 중심으로 탐색하기 위해 도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이주여성을 심층면접 하였다. 이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준비 없는 결혼이주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문화관습의 차이로 인한 몰이해,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했으나 여성들의 주도적인 적응노력과 남편의 조력자 역할을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한국남성의 권위적인 태도와 역할갈등보다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부가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문화차이를 조율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기보다

공유하면서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효율적인 역할분담전략으로 서로 적응하며 결혼만족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한국어능력, 자아탄력성, 학력, 재정 등의 개인적 자원과 남편의 지지, 사회적 지지와 부부갈등, 한국생활적응, 문화 적응과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원이나 남편과 사회의 지지를 자원의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적응에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 자원 중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는 요인이다. 언어를 통한 부부간 의사소통의 정도는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결혼 초기에 매우 중요하다(김현숙, 2006). 또한 언어는 문화습득능력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복순·차보현, 2006). 이주국 언어의 능숙함은 새로운 문화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며(Ataca & Berry, 2002),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Goldman, 1999; Nah, 1993). 김희주 외(2007)의 심층면접에서 참여자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되며, 남편과 시가족을 제외하고 자주 만나거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 한편 김현숙(2010)의 실증분석 결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 때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은 높은 반면 이혼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사소통수준이 결혼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문화적 배경 및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김현숙, 2010). 양순미(2000)의 연구 결과 조선족 이주여성의 적응수준이 필리핀과 일본 출신 이주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국적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할수록 결혼적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과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며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2010). 양옥경 외(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탄력성에 따라 결혼적응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은희(2009)는 자아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현숙 외(2010) 또한 자아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자아탄력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 적응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가족자원 중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높게, 이혼 의도는 낮게 나타나(김현숙, 2010), 배우자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양옥경 외(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구조적 요인, 가족문화적 요인, 심리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회귀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가족문화적 요인 중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실 외(2012)는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 결과에서 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남편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

의 결혼 적응 및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자원화 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남편과 가족의 지지가 지원되는 과정이나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체제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과 자원 사용방식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이주여성이 보유하고 사용한 자원이 한국생활적응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이 된 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특성은 어떠한가?
3.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을 만들어내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접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첫째, 국제결혼이주의 과정과 이주 후 한국생활 초기의 적응과정은 어떠했나? 둘째, 현재 생활은 어떠한가? 셋째, 미래에는 어떻게 살고 싶고,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는가? 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답으로부터 자원의 사용과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심층면접의 결과는 Wolcott(1994)의 자료 변형의 세 가지 측면, 즉 기술, 분석, 그리고 해석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 사 례 | 연령 | | 학력 | 직업 | | 국적 (여성) | 결혼 년도 | 자녀수 및 연령 | 시부모동 거 여부 |
|--------|----|----|------------------------|------|--------------|------------|----------|-------------|--------------|
| | 부인 | 남편 | | 결혼 전 | 현재 | | | | |
| 1 | 부인 | 42 | 전문대졸(중국), 사이버대재(한국) | 결혼 전 | 기업체통역 | 중국 | 1997 | 2(14,11) | 초기 동거 |
| | 남편 | 48 | | 현재 | 통번역사 | | | | |
| 2 | 부인 | 27 | 중졸 | 결혼 전 | 음식점 종업원 | 중국 | 2006 | 1(6,1) | 초기 동거 |
| | 남편 | 40 | | 현재 | 통번역사 | | | | |
| | 남편 | 40 | 고졸 | 남편 | 생산직 근로자 | | | | |
| 3 | 부인 | 26 | 중졸 | 결혼 전 | 생산직 근로자 | 베트남 | 2006 | 2(6) | 동거 |
| | 남편 | 37 | | 현재 | 통번역사 | | | | |
| | 남편 | 37 | 고졸 | 남편 | 생산직 근로자 | | | | |
| 4 | 부인 | 28 | 고졸 | 결혼 전 | 무 | 베트남 | 2004 | 2(7,5) | 동거 |
| | 남편 | 38 | | 현재 | 다문화홍보강사 | | | | |
| | 남편 | 38 | 고졸 | 남편 | 생산직 근로자 | | | | |
| 5 | 부인 | 37 | 대졸(필리핀/ 한국) | 결혼 전 | 생산직 근로자 | 필리핀 | 2000 | 2(9,4) | 비동거 |
| | 남편 | 47 | | 현재 | 시간제 영어강사 | | | | |
| | 남편 | 47 | 고졸 | 남편 | 생산직 근로자 | | | | |
| 6 | 부인 | 41 | 대중퇴 | 결혼 전 | 판매원 | 필리핀 | 2000 | 2(11,7) | 비동거 |
| | 남편 | 51 | | 현재 | 다문화홍보강사 | | | | |
| | 남편 | 51 | 고졸 | 남편 | 생산직 근로자 | | | | |
| 7 | 부인 | 28 | 고졸(필리핀),대재(한국) | 결혼 전 | 판매원 | 필리핀 | 2005 | 1(6) | 비동거 |
| | 남편 | 63 | | 현재 | 대학생/시간제 영어강사 | | | | |
| | 남편 | 63 | 고졸 | 남편 | 화물차 운전기사 | | | | |
| 8 | 부인 | 25 | 대졸 | 결혼 전 | 무 | 필리핀 | 2008 | 2(6,5) | 비동거 |
| | 남편 | 31 | | 현재 | 영어개인지도 | | | | |
| | 남편 | 31 | 대졸 | 남편 | 회사원(사무직) | | | | |
| 9 | 부인 | 34 | 고졸 | 결혼 전 | 사무직 | 중국 | 2001 | 1(11) | 초기 동거 |
| | 남편 | 46 | | 현재 | 다문화강사/이중언어강사 | | | | |
| | 남편 | 46 | 고졸 | 남편 | 생산직 | | | | |
| 10 | 부인 | 44 | 전문대졸 | 결혼 전 | 통역/ 사업 | 중국 | 2001 | 2(11,11) | 일시 동거 |
| | 남편 | 51 | | 현재 | 자영업(무급가족종사) | | | | |
| | 남편 | 51 | 중졸 | 남편 | 자영업 | | | | |

이주여성이 소유한 자원의 유형에 대해 기술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 사용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의 특징과 사례 간 비교를 바탕으로 이주 여성들이 다양한 차원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원을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대해 해석하였다.

2. 면접대상자의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방법은 심층면접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을 이용한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선정기준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출신국, 거주기간, 자녀유무, 학업과 취업경험 등을 고려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선행연구에서 적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으로서, 참여자로부터 직접 한국생활경험을 듣기 위해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출신국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출신국과 의사소통능력의 비교를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에 제약이 적은 조선족과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3개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거주기간과 자녀양육경험을 고려하여 자녀를 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박금순(1984, 김희주와 은선경, 2007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결혼적용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첫 자녀를 낳은 후 1년 이내이다. 이 시기는 초기 적응과정으로, 이주여성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문화차이를 경험하며 자녀출산에 따른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촉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입국 후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취업했던 여성들을 표집 하여 교육과 일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심층면접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10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의 다양성과 한국어능력에 따라 1회에서 3회의 면접을 시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이주여성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며,

남편과의 연령차는 6세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다. 학력 역시 중졸부터 대졸까지 편차가 크며, 현재 한국에서 다시 대학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사례,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례 등 한국에서 학력 신장을 위해 진학을 시도한 사례가 많다. 6명의 여성은 통번역사, 다문화홍보강사, 이중언어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2명의 필리핀 출신 여성은 영어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IV. 연구 결과

1. 자원의 유형

1) 개인적 자원

(1) 학력

연구참여자들의 모국에서의 학력은 국적과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4명 중 2명이 대졸, 1명이 대학 중퇴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인 한편 베트남여성 2인은 각각 중졸과 고졸의 수준이었다.

조선족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사례 2>는 중졸이며, <사례 1>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가세가 기울어 중퇴하고 가계를 돕다 다시 진학했던 경험이 있다. <사례 9>는 등록금 부담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신 등록금이 저렴한 기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비교적 가세가 어렵지 않아 전문대에 진학했던 <사례 10>을 제외한 조선족여성들은 가계형편으로 인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계곤란으로 진학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부친의 사망(사례 5, 7), 부모의 건강악화로 가세가 급속도로 어려워졌거나(사례 1, 4, 6), 많은 형제들의 학비 부담

으로 이미 상급학교에 다니고 있는 손위 형제들이나 남동생에게 진학의 기회를 양보했기 때문(사례 3, 4, 6)이다. 가계곤란으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을 포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빨리 취업해서 가계를 돕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사례 4>는 가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치자 가계를 돕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국제결혼을 결정했다.

<사례 4> 할머니도 아프고 돌아가신지 얼마 안돼서 아빠가 아팠어요. 수술도 하고... 중간에 고등학교 포기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대학교 공부하고 싶었어요. 내가 대학교 가면, 우리 언니도 대학교 포기해야 되고 남동생 두 명도 공부 못하니깐 내가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 후 일을 원했지만 학력이 낮거나 모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일보다는 학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례 2>는 한국사회에서 ‘학력을 많이 따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력을 높이기 위해 중졸검정고시를 거쳐 방송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학력이 낮은 여성들 뿐 아니라 대졸인 필리핀여성 <사례 5>와 고졸인 <사례 7>은 영어교육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각각 영어와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해 졸업 또는 재학 중이다. 그러므로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목표로 진학에 도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례 2> 제가 학력이 없었어요. 중졸이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좀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학력을 많이 따지는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고졸을 따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하나니까... 제가 검정고시를 시도했거든요.

<사례 5> 처음에는 (00대의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만 공부 했어요. 한 일 년 한국어공부 한 후에 다른 거 공부하려고 (진학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서 합격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으니까... 가르치는 일 하고 싶어요.

(2) 국적과 언어

연구참여자들의 국적은 중국(조선족),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으로 각각 다른 언어배경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여성 <사례 1>처럼 조선족 학교를 다닌 경우 결혼 후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례 2>는 한족학교를 다녔고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해 한국어를 알아듣기는 하나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하지 못해 입국 후 한국어를 배워야했다. 다른 국적의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한국어를 익히고 ‘대화’가 되자 ‘다른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잘 몰랐던 한국 문화도 수용이 되었다.

베트남여성들은 입국 후 처음 접하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까지 가본 경험이 있다. 그만큼 조선족여성에 비해 많은 투자와 어려움을 거쳐 한국어를 배운 것이다.

필리핀여성들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베트남여성과 마찬가지로의 조건이나 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생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먼저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엄마로서의 큰 역할이다. 또 지역의 학원이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 복지관에서 영어강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방편이며, 이로 인해 소득이 생기면 더욱 자신의 만족감과 동시

에 남편의 인정이 더 커진다. 나아가 이러한 장점들은 다른 이주여성들이나 한국인의 부러움과 인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례 8>은 남편의 필리핀 어학연수 중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남편이 귀국 후에도 전화와 이메일로, 그리고 필리핀을 다시 방문해 연애를 계속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아내가 영어사용자라는 것도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아내의 국적과 언어자원이 강력한 결혼동기가 된 것이다. 입국 후 만나는 한국인들도 그녀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언어자원'을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움과 인정을 표현한다.

언어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고 문화적 차이를 좁혀나가게 된다. 그러나 국적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는 국적만큼이나 태생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8> 구청에 가니깐 영어를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영어 때문에... 일하는 필리핀 사람은 '공장에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가르칩니다' 라고 하니깐 어머님들 대우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수단이 되기도 해요.

(3) 직업 및 소득

연구참여자 중 6명은 현재 취업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통번역사, 다문화홍보교사, 복지관의 다문화자녀 언어교육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례 5>와 <사례 7>은 각각 교사임용고사 준비와 재학으로 취업이 어려우며, 시간이 날 때는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직업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성취감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

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 마지막으로 소득원으로서의 의미이다.

이들이 직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능력 발휘', 한국사회에 적응해간다는 '자신감', 한국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일의 성격이 자신과 같은 다문화가족을 만나거나 갈등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통역을 맡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게 되는 부수적이지만 큰 효과를 얻게 된다.

<사례 2> 누구한테 '통번역을 한다' 이러면 성취감도, 그런 것도 있죠.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면서 진짜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제가 일 안했을 때는 제 성격도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일도 안 도와주지, 시어머니는 계속 뭐 예의 차리고 이야기하지... 일하면서 문제 있는 가족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의 삶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은, 그때 어떻게 했지?' 그렇게 보니까 '아, 나는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이들의 통역이나 상담일의 대상은 주로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처해 있는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일의 보람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사노동, 육아,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고단함과 회의를 상쇄해주고, 남편의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례 2>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100% 해결은 못해줘도, 제가 대화를 들어줘도 그 엄마한테는 큰 힘이 되고... 지금은 극복

잘 해서 잘 사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만 관두고 싶다. 힘들다' 그럴 때 남편이 '너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생각하라면서 '그러면 일이 재미있어진다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셋째, 취업활동을 통해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경제적 독립, 가계경제의 보탬, 그리고 본국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는 여유와 떳떳함 등의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번 돈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용돈, 친정 송금 등으로 쓰고 있었다. <사례 7>은 현재 학생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간간히 학원과 교회에서 시간제로 영어를 가르쳐 소득이 있을 때는 필요한 용돈으로 쓰거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자유롭게 쓰고 있다. 35세나 많은 그녀의 남편은 생활비를 주면서 항상 '아껴 쓰라고 귀가 아프도록 잔소리'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국에 비해 치열한 한국의 경제적 현실에서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자녀교육이나 돈이 많이 들어갈 때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소득은 생활비와 용돈을 보충하고 친정에 송금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족인 <사례 1>, <사례 2>, <사례 9>, <사례 10>은 부모와 남동생 등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례 6>은 조카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성들도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또는 돈을 벌지 못할 때 본국의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남편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사례 3>과 <사례 4>는 '가족을 위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고 결혼의 동기를 표명할 정도로 원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며, 강한 가족부양의

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결혼 초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남편에게 '송금'을 부탁했다가 남편과 시모가 '돈 보내려고 한국 왔냐'는 거부반응을 보이자 상처를 입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사례 4). 자신들이 일하면서 송금할 능력이 생기자 남편의 목인 하에 송금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득은 독립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송금여력을 준 경제적 자원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많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도 통번역사나 다문화홍보강사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가족 내에서 지위가 상승되며 남편과 시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사례 2). 아내가 취업한 것이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남편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나, 아내가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지금까지 발휘되지 못했던 능력을 발굴해내고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자 가족 내에서 아내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는 한국사회를 알아가고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갖게 된다(사례 2, 3).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직업과 소득은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데 유리한 자원화 되는 것이다.

<사례 7> 제가 일 있을 때는 엄마한테 돈 보내고.. 용돈도 쓰고 옷도 사 입고.. 마음대로 했어요. 내 돈 쓰면 남편 아무 말 없어요. 근데 남편 돈 쓸 때는 진짜 잔소리 많이 했어요... 남편이 혼자 돈 버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좀 도와줘야 되지. 여기는 돈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다 비싸서...

<사례 4> 옛날에 (제가 돈 벌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아빠가 아프다.. 당신이 돈 좀 부쳐주면 안 될까?" 이러면 "어머니한테 물어봐!"라고 해요.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 꺼내는 거 힘들잖아요.

계속 말하니까..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해요. "돈 부쳐달라고 하는데 부치면 안되나?"라고... 시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말했어요. "돈 때문에 한국 왔나?"

<사례 2> 남편이 저에게 맞춰줘요. 안 맞춰주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지 싶어요. 시어머니도 감정고시 다닐 때도 학원가면 애 봐주시고... 지금도 퇴근하고 애기 테러러 가면 제 밥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애기 못 봐주면 일 못 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4) 성격

타고난 성격과 성장과정에서 길러진 기질과 태도 등은 이들이 낳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가족을 잘 유지해가면서 일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자 자원이었다. 남다른 적응 비결에 대해 이들은 활발한 성격(사례 1, 2, 4, 5), 긍정적인 생각(사례 1, 2, 3), 어렸을 때부터 잘 견디고 잘 적응하는 근성(사례 1, 2, 5), 이해심과 배려심(사례 2, 4, 6), 부지런함(사례 4, 6), 호기심과 적극성(사례 3, 7, 9), 성취욕(사례 1, 3, 9),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격(사례 1, 9, 10) 등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언급했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도전을 잘 수용하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신을 언급했는데, <사례 2>는 일에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성격의 그녀에게 수능 응시는 '수능의 분위기'와 '한국의 교육제도'를 직접 느끼기 위해 도전해볼 만한 일의 하나이다. 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역이동(사례 1, 2, 10) 또는 국외이동(사례 5) 까지 감행하면서 취업했던 경험들이 강한 성격과 적응력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형제들과 성장하면서 몸

에 배인 배려심과 책임감도 결혼 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배경으로 작용한다(사례 5, 6).

<사례 1> 어려움이 있어도 꼭 끝까지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해보면 되고.. 일어나면 되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세 살에 중학교 가면 도시에서 기숙생활 쪽 성인될 때까지 한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 같아요. 또 가정에 어려움 겪치니까 극복 해가면서 그런 근성이 나도 모르게 생긴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한국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가족자원

(1) 남편의 지원

<사례 1>은 본인이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첫 번째로 남편의 지원을 들었다. 그만큼 이주여성들에게 남편의 지원은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자원이다. 남편의 지원은 아내의 성격을 잘 이해하거나 심리적 위안이 되어주는 마음 씀(사례 2, 5), 가사노동 지원(사례 2, 5, 7, 8), 아내의 학업과 등록금 지원(사례 1, 2, 5, 7),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례 3, 5, 6, 8)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를 도와주거나 아내의 성격을 잘 맞춰주는 조력자였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과 사회에서 성장한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도와주려는 인식조차 없어 '부부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사회에서 자란 이주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둘러싼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21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사례 2>는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부당한' 성역할 관념과 고정적인 사회 인식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강력한 요구 끝에 남편의

가사노동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례 3>의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호기심 많은 아내가 한국문화를 배워나가면서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나 베트남식당을 가고 싶어 할 때 ‘귀찮아서’ 피할 정도로 외국인아내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데도 인색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심함에 실망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자 남편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남편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대화를 유도하며, 남편이 원하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남편을 만족시킨 후 공부와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편의 지원은 아내의 적응노력과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3> 베트남에서는 항상 남자가 먼저 사과하거나 말을 걸어야 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속상할 때 제가 말 안하고, 남편도 똑같이 하니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을 먼저 했죠... 무엇이든지 (제가) 잘하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해요. 제 친구 중에 계속 같이 공부하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고 그랬을 때, 그럴 때 기분 좋아했어요. 제가 ‘아~ 그런 거 좋아하구나’를 알게 되었죠... 제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거, 대부분 좋은 결과 나오니까 좋게 봐줘요.

(2) 시부모의 지원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남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사례 4>는 남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한 그녀는 현지 맞선에 동행한 시부모를 보고 남편의 의존성 또는 사회적 능력 결핍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가 있어 좋은 배경’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의 남편은 회사만 다닐 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거의 없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 초 한국 실정을 모르는 아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남편으로부터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녀에게 이를 대신해주는 사람은 시어머니이다. 시모는 입국 초 며느리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버스를 타고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며느리가 온갖 교육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 그녀의 시모는 남편의 지원이 없는 결혼생활에서도 며느리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아내와 엄마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있다(사례 4).

<사례 4>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한국말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사진도 사주고, 글씨 하나 하나씩 얘기처럼 쓸 수 있는 책도 사줬어요. 여기 저기.. 봄 되면 꽃구경도 가고, 같이 다니고, 얘기 넣고 친정엄마 없으니깐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그랬어요. 얘기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저도 학교 갈 수 있고, 지금은 둘째 낳고 시어머니가 봐주니깐 저는 일도 하고 ...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사례 2>와 <사례 3>의 여성은 남편의 지원 이외에 시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지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시부모와 계속 동거하고 있거나 초기에 동거하였는데, 동거하는 동안 세대 차이와 문화차이로 갈등을 빚거나 불만을 갖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적응과 이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좋은 고부관계를 확립하고, 그 관계를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고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지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이주여성들 역시 ‘딸 같은’ 태도로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서로 지지하는 상호작용으로 시부모로부터 가사노동, 육아, 심리적 지원 등의 가족자원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사례 3> 아기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가 아직 2개월이면 못 업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길래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서 큰소리 내고... 서로 갈등이 생겼지만 제 성격은 마음에 안 들어도 혼자서 속상해하고, 어머니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친정가족의 지원

이주여성들의 출산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생의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나 처음 경험하는 출산과 자녀양육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시부모가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지원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사례 5, 6, 7, 8)의 경우 친정어머니나 언니를 초청해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학업이나 취업을 하기도 했다. <사례 6>은 친정모친 역시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키운 언니를 초청해 1년 동안 자녀양육을 맡겼다. 즉, 친정가족에게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는 대신 자신은 취업해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족 여성들(사례 1, 2, 9, 10)은 결혼이주 후 부모와 형제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왕래하고 있다. 이들은 친정가족과 동거하거나 직접적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지는 않지만 원할 때 만날 수 있고 가까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큰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 또 초청된 친정가족은 일자리를 찾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면서 중국에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주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비나 남편의 사업비용을 보조받는 등(사례 9, 10)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모국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심리적 지지와 가사노동 지원, 경제적 지원은 이주여성들

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사례 6> 저도 일하고 싶으니까 언니를 데리고 와서 애들 봐줬어요. 1년 동안. 언니 있는 동안 휴대폰 공장 다녔어요. (언니는) 애들 다 컸으니까 남편도 허락했으니까 왔어요.

<사례 10> (엄마가) 몇 년 동안 부산에서 돈 벌면서 매달, 애가 있으니까 20만원씩 보태줬거든요.... 우리 아저씨(남편) 돈도 없는데 어디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정아버지가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가지고 우리 친정 돈을 이래저래 2000만 원 정도 돈을 쓴 거예요. 1, 2년 되는 사이에.

3)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은 지역사회, 이웃, 친구로부터의 지원을 말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국친구의 지지와 같은 사적 자원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자원을 주로 언급하였다.

<사례 5>는 결혼 초 집 근처 복지관의 한국어 교실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 뿐 아니라 외국여성들이 대부분 '거기서 출발한다'고 할 만큼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들(사례 3, 4)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만 아니라 교회, 사설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을 이용했다. 또 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한국요리, 노래교실 등 문화프로그램과 최근에는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 봉사활동 등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어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교육에 참여하면서 종사자들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받기도 하고, 모국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입국 초 가족 이외에는 한국인과의 교류가 없었던 이들에게 중

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은 큰 심리적 지지가 되었다. 또, 종사자들은 한국의 사회체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알려준 정보제공자이기도 하다(사례 3). <사례 9>는 결혼 후 6년간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일하는 시어머니 대신 살림과 시부 수발을 도맡았지만 동거하지 않는 동서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었다. 그녀가 한국어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처음 만난 종사자는 가족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때의 감동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사례 9 참조). 그러므로 지역사회시설의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과 교육을 맡은 교사들은 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이들이 입국 후 관계를 맺게 되는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하다. 또 사례(사례 1, 2, 3, 4, 6)에 따라서는 참여했던 사회시설에서 남다른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통번역사, 다문화 홍보교사, 영어교사 등으로 채용되기도 한다(사례 3 참조). 그러므로 복지관이나 센터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시설이 모든 이주여성에게 직접적인 자원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입국 7년이 되었지만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6개월 정도 배운 경험이 전부인 <사례 7>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했고, <사례 8>은 남편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하며 한국어를 배울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회시설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시설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효과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례 9> 내가 거기에, 다문화센터에 처음 딱

갔을 때 팀장님이 대하는 태도가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따뜻한 정 있죠,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시택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때, 그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처음에 다문화 홍보강사 할 때도 남 앞에 서서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팀장님은 ‘00 씨 할 수 있어’ 따뜻한 말투로 항상 응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분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3> 보통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렵다’,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한다’, ‘귀찮다’.. 안 배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즐겁게... 센터 선생님들이 이해해주시고 항상 친절하시니까 갈 때마다 기분 좋아졌고, 편한 마음으로 한국어를... 빠짐없이 거의 매일 다녔고, 요리, 합창단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자녀 교육, 체험도 가고 많이 참석했어요. 다 해보고 싶었어요... 2년 동안 거기서 배우면서 모국어 지원단?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신문을 만들어요. 그거 한 1년 정도 했고, 그걸 경험으로 통번역 일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능력도 많이 늘었고...

이상의 사례에서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의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초기 생활적응 위한 교육 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를 대신하는 종사자의 심리적 지지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공적 지원체계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원 사용방식의 특성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자원의 유형에 대한 기술을 바

당으로 자원사용방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자원 활용의 융통성

연구참여자들의 국적과 연령, 학력 등의 개인적 자원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자원들을 결혼생활에 유리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원화 시키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필리핀 출신 여성들의 영어능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원화 되고 있었다. 즉, 소득활동에 이용될 수 있으며, 가족 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한국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단,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보다 유리하고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며,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데도 유리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적의 여성들은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차별화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자원을 활용해 취업에 유리하며 소득이 생기면 성취감과 함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독립적인 경제력은 이주여성이 부부관계나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태생적 자원인 영어 자원을 가지고도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여성사례는 자원 활용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어는 명백히 유리한 개인적 자원이나 이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합되어야 원하는 결과나 목표를 위해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하겠다.

반면에 유리한 언어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은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 적극성, 호기심 등의 성격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여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국문화와 생활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뿐 아니라 결국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이들은 성격적 장점

을 한국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언어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여성들도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으로써 또한 차별적인 자원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적 자원은 매우 융통성 있게 활용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리한 언어 자원이 자체로서 차별적인 자원으로 부각되기 보다는 잘 활용하려는 의지와 결합되어야 하며, 언어자원의 부족을 다른 개인적 자원으로 대체, 보완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자원을 유도하게 되는 사례들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자원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활용 능력이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자원의 활성화와 다양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자원을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비교적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로부터의 지지와 도움이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수준과 형태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 성역할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문화적 충돌과 갈등 끝에 남편과 시부모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타협을 거쳐 유도해낸 것이다.

또한 남편과 시부모가 아내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가족문화의 유지’를 전제로 한 지지였다. 특히 남편의 지지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며느리역할에 순응하고 부양의 역할을 다할 때 지원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와 똑같이’ 대하고, 서로 참는 방식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흔히 불편하고 갈등적 관계로 그려지는 고부관계를 초기 적응과정에서 잘 극복하여 시어머니의 존재를 본인에게 유

리한 자원화하고 있었다. 시부모의 지지 또한 상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무리 없이 해내며 아들과 함께 소득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병행하는 부담은 최근 한국여성들에게 기대하기 힘든 역할로, 시부모 역시 떠느리가 부양역할을 다하자 가사노동과 육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부모가 사망했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은 친정가족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자원을 활성화시켜 사용함으로써 가족자원을 다양화시켰다. 친정가족은 이주여성들이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는 가족자원으로, 낯선 환경에서 소외감을 극복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친정가족들이 같은 한국 사회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심리적 지지가 된다. 특히 조선족 여성들은 친정가족을 자유롭게 초청하고, 가족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동'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여성이 결혼 초부터 부모와 형제를 초청해 가족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다. 즉, 입국한 친정가족과 심리적 지지, 가사노동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할 수 있어 가족자원의 범위를 친정가족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범위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성화시키며, 따라서 유리한 가족자원을 활용해 결혼생활과 취업, 학업 등을 병행하며 한국생활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

3) 자원의 확장과 창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주변의 공식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화 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 초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출발지'로 활용했으며, 다양한 취

미활동, 봉사활동, 가족행사 등에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만나 교류하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했다.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언어자원, 문화자원과 연계된 다문화홍보교육, 이중언어교육 등의 교육을 받게 되고 정책적으로 이주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인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강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받은 여성들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자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즉,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언어자원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뜨게 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견하며,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또 미래계획을 '학력 신장'에 대한 욕구로 연결시켰다. 즉, 취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의 학력, 그리고 현재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정고시나 대학 입학에 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육과 일자리가 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경험과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 이용과 한국생활적응

1) 가정환경 내 자원의 이용과 한국생활적응

가정환경에서 파생되는 자원에는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이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 사용되지만 연구참여자 중 필리핀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영어사용능력은 한국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원이었다. 영어교육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다른 이주여성에 비해 취업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따라서 모든 필리핀 여성에게 언어자원은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여성들은 이 자원을 통해 다양한 사람 또는 다양한 환경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즉,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 시가족 등 다양한 관계의 한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쳐달라’며 호감을 표시해와 쉽게 접촉할 수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차원의 체계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언어자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후 영어교사가 되는 목표를 갖게 된다. 즉,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적의 여성들은 유리한 언어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유의 성실성과 노력으로 유창한 한국어실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인정받아 일자리를 찾게 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다.

가족자원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남편의 지지이다. 결혼 초 한국인 남편들은 거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인식으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도와준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며, 시어머니 역시 이러한 거부장권과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강화시켰다. 남편의 지원은 이주여성에게 가정 내 역할 뿐 아니라 취업자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 남편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역할의 수정으로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편의 역할 변화와 지원은 기존 연구에서 이주

여성의 남편들이 충분한 지지와 자원이 되기보다는 가정에서 ‘왕처럼 구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태도(김현숙, 2006)로 일관하거나 가정 내 자원을 독점하며(홍기혜, 2000), 심지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강유진, 1999) 것으로 보고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지역사회환경 내 자원의 이용과 한국 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이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시설은 가족이 지원해주기 어려운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준 지역사회환경 내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베트남여성 <사례 3>, <사례 4>, 필리핀여성 <사례 5>, <사례 7>,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했던 조선족여성 <사례 2>의 경우 입국 초부터 가장 시급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교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이주여성에게 지원되는 교육과 취업 혜택을 받게 되면서 더 넓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환경과 활발히 상호작용 하면서 교육, 행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족한 자신의 자원을 보완하거나 대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생활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나 남편의 지지가 없거나 시부모와 갈등관계에 있어 가족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성들은 지역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자원을 ‘사회

적 자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여성들은 가정 외부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한국어가 매우 서툴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나 적응능력도 낮다. 따라서 모든 이주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도 개인의 활용의지와 정보능력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화 시키는데 차이가 있으며, 지역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빈도는 결과적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자원체계를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의 자원사용방식에서는 각 차원의 보완적 사용이 나타났다. 즉 개인적 자원의 부족을 다른 개인적 자원으로 대체 활용하거나 가족자원으로 보완하며, 가족자원의 부족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완하여 필요한 자원을 최대로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이 보여준 다양한 자원의 보완적 사용이나 최대화, 또 새로운 자원을 유도하고 창출해내는 능력은 한국생활적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적과 언어능력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개인적 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국 초 본인의 노력과 지역사회시설의 도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시작해 의사사통이 가능하고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단계에 이

르면 경제활동을 하거나 진학, 자격증 취득 등 인적자본 투자를 실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응단계는 김이선 외(2008)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적 언어 소통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는 현상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입국 후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적응, 경제활동, 인적자본투자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단계적 적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취업하면서 소득과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자 부부관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가사노동 분담을 요구하는 협상력을 갖게 된 사례들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부부간의 권력과 역할관계를 설명한 Blood 와 Wolfe(1960)의 자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기존의 자원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원인 교육수준과 취업, 소득 이외에 언어와 국적이 가정 내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숙(2006)의 견해와 유사한 상황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국적의 여성들이 취업과 소득 확보에 유리하고,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남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경제권을 갖고, 결과적으로 보다 대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주여성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오히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과 남성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강화시켜 부부갈등을 발생시킨다고 한 김상임(2004), 홍기혜(200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유리한 언어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도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자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양상은 언어의 능숙함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배움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한 Nah(1993)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에 정착과 적응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결혼 초기에 비해 점차 남편의 지원을 받아 가족자원을 활성화시키는 현상은 체계론에서 제시하는 가족체계 내 하위체계의 상호작용의 결과 남편이 아내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고 남편 자신도 변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부모의 지원 역시 남편의 지원과 유사하게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시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내면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자 상호적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며느리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와 상호 부양의 과정에서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됨에 따라 지지하고 배려하는 고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이대 부부에 대한 지나친 '시부모의 간섭과 애착'(윤형숙, 2003; 김현숙, 2006), 시어머니의 '권위'로 인한 고부갈등(강원도 여성정책개발실, 2001)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자원 중 모국 친구나 자국민 자조집단의 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모국여성들과의 교류는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거나 모국음식을 같이 먹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모국친구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정말 많이 받은' 것으로, 지역사회환경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센터 종사자들로부터 모국인이 제공하기 어려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모국인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새로운 환경 적응에 유용한 자원으로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국인과의 사적 네트워크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원체계를 더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여성의 개인적 자원의 활성화와 효용 증진을 위해 성공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사례들을 역할 모델로 제시하면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지금까지 거주지역별 또는 국적별 자조모임이 유지되고 단기적으로 지원되기도 했으나 이는 주로 친목 도모나 사적 정보 교류의 수준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와 같이 초기 적응의 단계를 지나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한국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단계에서는 사적 정보가 아닌 취업정보, 교육정보, 복지서비스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중 이주여성들의 통역이나 상담자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거쳐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초기 입국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자조모임의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정체감을 찾지 못해 갈등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원 활용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원으로서 지역사회환경 차원에서는 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단계적 변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입국한지 오래된 여성들은 초기에 필수적인 한국어나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또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문화적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응의 중반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취업교육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지원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독자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어

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거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역할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가 대도시인가 또는 농촌인가에 따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규모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지역에 기반을 둔 차별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원을 결정짓는 광역환경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주여성지원정책의 영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급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방향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지원, 취업지원, 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기여하는 자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에 접근해 자원의 부재, 자원활용 능력의 한계 등 부적응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환경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사례들을 모집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심으로 모집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취업자가 다수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적 지원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이주여성이나 입국 초기부터 취업해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할 기회가 없는 이주여성들과 같이 자원의 보유상태가 더 취약한 집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곳에서 알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필요한 자격과 학력을 갖추려는 준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계약직에 대한 불만과 취업이주여성들의 고충, 현행 이주여성 취업지원정책의 한계 등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원을 수요자인 이주여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였는데, 기관 종사자나 관리자, 교사와 같이 공급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자원의 성격과 수요공급특성은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원을 총체적인 수급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2) 공수연·양성은(2011).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01-117.
- 3) 김두섭·이명진(2007). 국제결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 33-56.
- 4) 김민경(201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연구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41-57.
- 5) 김상업(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 6)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7)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오남·김경신·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

- 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 9)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10) 김은경(2010).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12.
 - 11) 김현숙(200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163-176.
 - 12)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13) 김현숙·김희재·오중환(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14)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5) 신정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신유경·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09-122.
 - 17)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서울 : 한울.
 - 18)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2005). 전라북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고서.
 - 19) 양옥경·송민경·임세외(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20)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적응과 결혼만족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7-230.
 - 21) 양인숙·민무숙·김선훈(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2) 이아진·최연실(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 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1), 71-90.
 - 23) 이영실·조명희·홍성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71-194.
 - 24)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25) 장진경·전종미·신유경(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21-38.
 - 26) 정천석·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27) 채옥희·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3-78.
 - 28) 채옥희·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1), 61-73.
 - 29) 홍기혜(200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형태 분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홍달아기·채옥희·한은진·송복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21.
 - 31) 홍성희(2012).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49-175.

- 32) 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선강(2008).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서울 : 도서출판 신정.
- 33) Abraham, M.(2000). Speaking the unspeakable: Marital violence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34) Ataca, B. & Berry, W.J.(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35) Goldman, M.(1999).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Meeting its goals in protecting battered immigrant wome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75-392.
- 36) Felmler, D. & Clark-Ibanez, M.(2004). Interethnic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93-305.
- 37) Blood, R. O. Jr.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 38) Woelz-Stirling, N., Manderson, L., Kelaher, M. & Gordon, S.(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Philippine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 39)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투 고 일 : 2013년 3월 28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14일